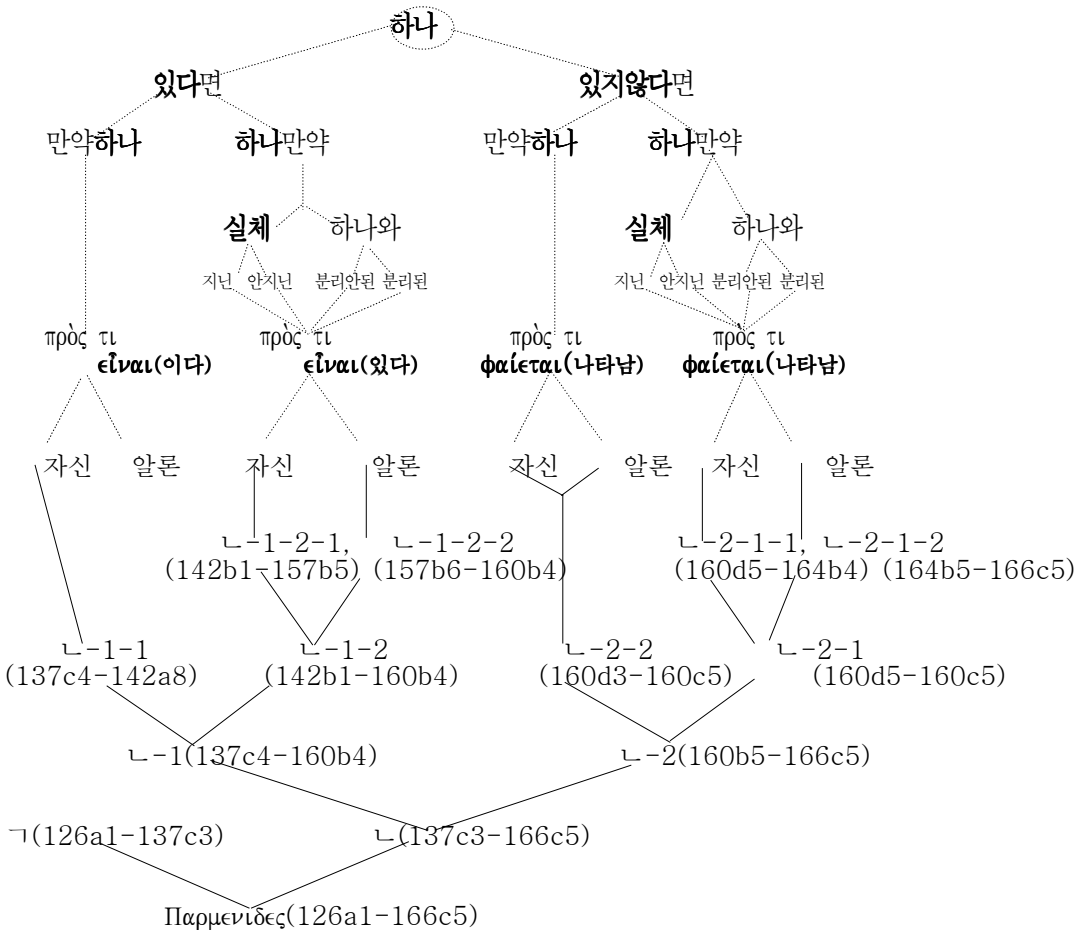
2-2)파르메니데스 편(논문1, 19-21쪽)

파르메니데스 편은 ㄱ)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에이도스론을 전개하는 부분(126a1-137c3)과 ㄴ)파르메니데스가 그 에이도스론을 직접 보완하는 부분(137c4-166c5) 등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다시 ㄱ-1)에이도스론이 시작되기까지 일련의 상황이 기술되는 부분(126a1-127d6)과 ㄱ-2)'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제논의 첫 전제(휘포테신)에 이의(異議)가 제기되면서 에이도스론이 전개되는 부분(127d6-137c3)등 두 가지로 그 첫 부분은 나뉘며(169쪽), 역시 두 번째 부분도 ㄴ-1)하나가 있다면 하나와 다른 것들이 각각 자기 자신들과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137c4 -160b4)과 ㄴ-2)하나가 있지 않다면 하나와 다른 것들이 각각 자기 자신들과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160b5-166c5)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두 번째 부분을 아래 도표로, 첫 번째 부분은 다음 쪽 도표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도표 1 - 전제되고 있는 것과 하나)

앞 쪽 도표 '3'을 15쪽 도표 '1'과 비교해 보면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εἶναι(있음-존재)와 τὸ ὄν(있는 것-존재)과 οὐσία(실체-존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잘 드러 날 것이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또는 하나가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하나 자신 그리고 알론한(다른) 것은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관한 논증이 바로 파르메니테스 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르메니데스 편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단에 의해 확인된다. 이렇게 끝나는 파르메니데스 편이 소피스테스 편에 대해 맺는 관련은 이미 15쪽에서 말하여졌다.

>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간략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옳게 말하는 것인가? - 절대적으로 - 따라서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가 있든 있지 않든 하나 그것 그리고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있고 있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πρὸς αὑτὰ καὶ πρὸς ἄλληλα πάντα πάντως ἐστί τε καὶ οὐκ ἔστι καὶ φαίνεται τε καὶ οὐ φαίνεται, 166c4-5)라고 말하도록 하세 - 가장 진실하십니다(166b7-c5)"

그리고 그 관련은 파르메니데스 편 전반 부에서 말해지는 이데아론과 그 아포리아에 의해 더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소피스테스 편 역시 이데아들의 상호 관련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스 편 전반 부(126a1-137c3)는 다음 쪽 도표처럼 요약될 수 있다.

(도식 2: 파르메니데스 편 전반 부의 내용 구분)

1)들어가기(126a1-127d5)

1-1)안티폰을 만나는 케팔로스 일행(126a1-127a7)

1-2)안티폰이 기억하는 제논과 파르메니데스와 소크라테스와의 만남(127a7-127d5)

2)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 론(127d6-128e4)

2-1)제논의 글이 지니는 의도를 말하는 소크라테스(127d6-128e4)

2-2)제논의 반박 - 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론(128e5-130a2)

2-3)에이도스의 분리를 확인하는 파르메니데스(130a3-130b6)

3)파르메니데스가 지적하는 그 에이도스론의 아포리아들(130b7-135c4)

3-1)예를들어 사람과 먼지의 에이도스도 (분리 해) 있는가?(130b7-130d9)

3-2)에이도스들을 어떻게 나누어 지니는가?(130e1-131e9)

3-2-1) Μεταλαμὶανεῖν(130e5)

3-3)에이도스들이 무한히 있게 되지 않는가?(132a1-132b2)

3-3-1)모든 것에 동일한 것(ἡ αὐτὸ, 132a3)이 이데아이다.

3-4)에이도스들이 노에마들처럼 나뉘어 지녀지는가?(132b3-132c11)

3-4-1)에이도스들은 노에마들(νόημα, 132b4)인가?

3-5)나누어 지님이라는 관계는 닮음이라면, 에이도스들은 무한히 있게 되는데? (132c12-133a10)

3-6)분리 해 있다면, 우리에 관한 앎을 신은 지닐 수 없게되지 않는가?(133a11-134e8)

3-6-1)앎의 에이도스 자체(αὐτοῦ τοῦ εἶδους τοῦ τῆς ἐπίστήμης, 134b6-7)

3-7)그러나 이데아가 없다면, 우리는 철학을 잃게되지 않는가?(134e9-135c4)

4)아포리아에서 벗어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파르메니데스(135c5-137c3)

논문 4 임시 목차

1)들어가기

2)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론(127d6-130b6)

2-1)이데아의 단일성

2-2)분리(χώρις)

3)그 이데아론의 아포리아(130b7-135c4)

3-1)나누어 지님(Μετέχειν, 분유, 分有)

3-1-1)어떻게 나누어 지니나? - 전체와 부분인가?

3-1-2)나누어 지녀지는 에이도스들이 무한히 있게 된다 - '제 3 인간'

3-1-2-1)큼과 작음

3-1-2-2)원본과 모상

3-1-3)앎이 불 가능해진다.

3-1-4)철학도 불 가능해진다.

4)아포리아의 극복

4-1)나누어 지는 그 때가 시간 안에 있지 않다.

4-1-1)제 2 가정에 있어서의 시간.

4-2)그 때(ἐξαίφνης, 순식간)는 존재와 비존재의 영역이 아니다.

4-1-2)하나의 상태(ἕξις)이다.

4-3)따라서 모순이 극복된다.

5)전반 부와 후반 부의 관련성

I)파르메니데스 편 해석들

1)심오한 형이상학의 전개로 여기는 (현대) 신 플라톤 주의 자(논문집 31, 60a, 각주 19번) 와 헤에겔 주의 그리고 그 이외의 해석

Πλωτινος(A.D. 205-270),
Προκλος(A.D. 410-485),

Zeller E.(1839),
Speiser A.(1937),
Wahl J.(1951),
Gauss H.(1961),
Friedländer P.(1975),
Groy H.(1981),
Trienes R.(1989),
Devereux (1994).
Reale G.[1968(1990), 1991(1997)],
Hubber,
Wyller,
Lynch,

1-1)신 플라톤 주의 반박

Hägler(100)
Taylor(145-159)

1-2)헤겔 주의(의 근거는 신 플라톤 주의이다, Groy, 논문집 31, 31)

Hegel[1832-45(1971)]
Bröker,

2)인식정립의 과정으로 보는 신 칸트 주의적인 해석

Natorp(1921),
Wunt,
Weingartner(1973)

3)비(非)·반(伴)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

Gorte G.(1888),
Horn F.(1904)
Burnet J.[1914(1950)],
Cornford F.M.[1939(1958)],
Cherniss H.[1932(1977)]
Ryle G.(1939)
Taylor A.E.[1943(파.), 1936(그 책.) =Burnet?, 토일러, 파., 서문)
Ross D.(1953)

Robinson R.(1953)
Robinson R.(1953),
Vlastos G.(1955),
Runciman W.G.(1959)
Owen G.E.L.(1959)
Moravcsick J.M.E.(1964, 1992),
Zekl H.G.(1972)
Sayer K.M.(1978),
Hägler R.P.(1983),
Allen R.E.(1983),
Fine G.(1984),
Miller M.H.(1986),
Turnbull R. G.(1989)
Meinwald C.C.(1991),
Mainwald C.C.(1991)
McCabe M.M.(1996),
Coxon A.H.(1999),

1-1)신 플라톤 주의 자들과 헤에겔의 파르메니데스 편 해석(긍정적인 형이상학의 전개로 간주함).

Πλωτινος(A.D. 205-270): 파르메니데스는 존재(τὸ ὄν, V.1, 16)과 누우스를 동일시 했지만,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는 일자를 여럿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일자와 그리고 일자와 여럿(ἕν καὶ πολλα, V.1. 26)으로부터 구분한다(플로티누스에 대한 비판은 토일러(파., 145-159)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Προκλος(A.D. 410-485): 그 대화 편의 의도는 논쟁 훈련(번역 36)도 방법 훈련도 아니라, 하나(신?, 36)로부터(유래) 생성되는 모든 것(being)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외견상[apparently, 번역, 들어가기(xxxiii), 195]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포리아는 단지 어떠한 수준에서만 해결 될 수 없다. 더 놓은 수준에서는 해결된다. 그래서 해결 될 수 없는 아포리아들은 없다. 파르메니데스의 의도는 논쟁(eristic)이 아니라, 산파술(maieutic, 번역, 195)이다.

주석가들은 하나와 다른 것들에 관한 동일한 [명제]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그 귀결(τὰ ἑπαόμενα τῷ ποιῷ, 1052, 29줄)이 질적으로 차이나면 전제(ὑπόεσιν)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아님]

불 가능한 결론(ἀδύνατα συμβαίνει, 1057, 4; 번역 414)들이 나옴-플루타르크도 이런 견해를 지녔음

1·2·3·4·5 가정은 진실한, 그러나 6·7·8·9 가정은 ἄτοπά(1056, 3; 1061, 13)한 귀결을 지닌다. 따라서 그의 의도(σκοπὸς, 1056, 17)는 있는 모든 것은 일자의 있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바탕(τὴν ὑπόστασιν, 1056, 18-19; 번역 413)을 얻는 반면, 일자의 있지 않음을 통해서 사물들의 자연은 단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플로티누스의 스승인 Syrianusi에 따르면,

1 가정은 있는 것의 우시아(οὐσίας.....τοῦ ὄντος, 1060, 29), 곧 일자 - 신(τὸ ὅν εἶναι θεος, 1063, 21: 번역 419), 그래서 1 가정은 있는 것 보다 우등한 하나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맺는 관계를 다룬다.

2·3 가정은 항상 있는 것 - 제 1 가정(모든 신들, 1064, 1)·제 3 가정(신 같은 영혼들, 1064, 5), 그래서 제 2 가정은 있는 것과 동치인 하나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맺는 관계를 다루며, 제 3 가 정은 있는 것 보다 열등한(τὸ καταφεέστερον τοῦ ὄντος, 1040, 5; 번역 401)하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맺는 관계를 다룬다.

4·5 가정은 생성되는 것 - 제 4 가정(질료 안의 <형상?>들)·제 5 가정(질료, 1064, 8)을 다룬다.

논리 방법 연습aporetic(번역, 29)으로서의 논리 방법 연습과 훈련(번역 30)으로서의 논리 방법 연습, 그리고 존재에 관한 연구(번역 32)로서의 형이상학과 일자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연구로서의 형이상학(번역, 34)등으로 그 대화 편의 주제에 관한 의견들이 갈린다[프로클레스는 네 번째 의견을 완성한다]

Zeller(1839, 플연.): 그 첫 번째 부분의 물음들은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변증법적인 답(Dialektische Antwort, 플연, 182)을 얻는다. 그리고 그 전체 저작의 목적은 가능한 이의 제기와 오해에 맞서 그 이데아론을 근거지우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Hegel: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은 신적인 삶의 긍적적인 묘사와 계시를 위한 고대 변증법의 가장 위대한 Kunstwerk(정신형상학, 서문, 57쪽).

Gauss(1961): 두 번째 부분은 이데아 변증법으로서 중기 플라톤 철학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Friedländer(1975): 첫 부분의 아포리아들은 분리와 관계의 Ineinander(논문집31, 152b)에서 해소된다-내재와 초월(144B). 변증법 Übung의 임무는 하나와 여럿의, 존재와 비존재의, 에이도스세계와 현상이 세계의 필연적인 Aufeinander bezogensein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153a).

Groy(1981): 첫 부분은 플라톤 자신의 이데아 비판이라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Konsens, 논문집31, 27)가 있다.

그런데 신 플라톤과 칸트 학파의 해석의 난점은 그 대화 편의 두 부분 사이의 관계(31)를 물음 설정(관여 문제)과 해소(과정을 통한 이데아와 감각세계의 합쳐짐)로 봄에 있어 안티노미적인 결론이 전제들에 의해 잇따른다는 것에 있다.

Dialektischen Interpretation(68b).

Triens(1989): 두 부분은 변증법의 두 구분되는 형식(form, 3)이다. 첫 부분은 아포리아적 논의의 변증법이며 두 번째 부분은 이데아의 형이상학을 구성하는 형이상학적 변증법으로서 아포리아들을 해결한다.

트리엔스는 헤겔의 파르메니데스의 비판적인 개정으로 나아간다.

Reale[1968(1990), 1991(1997)]: 첫 번째 부분의 아포리아는 플라톤 자신의 이론에 관한 비판이 아니다. 파이돈의 제 2의 항해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데아 론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행해진 것이다(논문집30, 226, 각주 9).

Devereux(1994): 파르메니데스 편 초반 부는 플라톤의 형상 개념의 발전에 상응한다(논문집30, 617b)

1-2)비(非)형이상학적 인식 이론

Natorp: 소크라테스의 이데아 론은 오해된(mißverstandene, 이데아론, 232쪽)이다. 그러나 방법으로서의 이데아 론에 입각한 그 아포리아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242).

가정은 그 자체 섞어지고 다시 분리 될 수 있는 순수 개념들의 연역(Deduktion, 243)이다. 이러한 연역 과정 안에서 그 하나의 기능(Finktion, 245)이 정립된다. 그리고 그 연역의 마지막 전개에서 경험(Erfahrungs, 245)의 영역이 정립된다.

제 1 가정

제 2 가정에서는 모순되는, 관련된(beziehertlich, 2460)모든 사유 정립-인식일반-이 가능해진다. 이 두 번째 연역은 저 소크라테스의 도전(248)에 대한 답이다.

제 3 가정(연역)-변화 개념의 연역은 1·2의 매개(Vermittlung, 260)이다. 변화 역시 8 가지 근본 개념들(achten Grundbegriff, 245)중의 하나이다. (시간의) 연속성의 Denkmittel을 통해서 전제의 무 관계적인 정립과 반(反)전제의 관계적인(bezüglichen, 263)정립의 균형(Ausgleich)이 시작된다 - 순수하게 생각된 아 프리오리한 Idee가 경험(관계성Bezüglichkeit의 영역)안으로 들어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 관계성 안의 비(非)관계적인 정립. 그래서 방법적으로 확실해진 인식으로서의 경험의 가능성의 첫 근거가 놓여진다. 이것이 바로 전체 조사의 Ziel(263)이다.

Weingartner(1973): 앎 획득 방법과 앎의 대상의 자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플라톤은 개조(revising, 논문집30, 153) - 이것은 형상에 관한 그의 개념을 개조(112)하는 것이다.

런치맨의 해석에는 무게가 있다.

1-3)非反 형이상학적인 현대의 해석

Grote(1888): 파르메니데스 편의 enigma(109)는 긍정적인 사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의심과 회의로 끌고 간다 - 애매한 명제와 정당치 못한 추리가 있다.

Horn(1904): Zeller와 Grote에 관한 언급(94).

Stellbaum(In Apel, 특색, 45; In Cornford, 파., 101): 파르메니데스 보다는 소크라테스학파인 메가라 학파에 향한다.

Burnet[1914(1950)]: 전반 부는 파이돈과 국가 편에 나오는 형상론 비판(그릭철학사, 253). 플라톤은 관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공하지 않는다(255). 관여에 반대하는 논의들은 메가라 학파의 Eristic(254)이다.

후반 부는 정신적인 훈련(γυμνασία, 261)으로서, 그 가치를 방법 훈련에 두는 laborious game(262)이다 - 실제로 그는 메가라 학파의 무기를 가지로 메가라 사상을 반박한다.

Tayler[1934(파.,), 1936(그 책)]: 전반 부는 일과 다의 어려움을 관여 이론으로 해결하려 한 소크라테스가 지니는 어려움, 곧 이데아의 단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어긋나다(파., 서물, 7)

전 후반의 그 어떤 연결(파., 서문, 8)도 있지 않다 - 희망 없는 회의주의(서문, 8)

후반 부는 플라톤 자신의 것이 아닌 제논의 모방(imitation, 파., 서문; 저서, 350, 366)-Jeu d' esprit (철학사, 351)이다 - 귀결 (역설)들은 플라톤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오류들을 드러 낼 뿐이다(그의 책, 366).신 플라톤 주의 해석은 원리상 illegitimaet(파., 서문)

제 1 가정은 있는 것의 단일성(unity, 그의 책, 366)을 강조 - 있는 것 자체가 부정됨.

제 2 가정은 있는 것의 실제성을 강조 - 단일성은 긍정과 동시에 부정. 그러나 궤변이며, 'each'와 'all collect'를 동일시하는 오류 추리(책1, 89a, 그의 책 366쪽).

제 3 가정은 Appendix(그의 책, 366).

[토일러(파., 서문)는 버넷에 동의한다. 그러나 버넷의 사후 저서 platonism는 버싯 자신의 의견의 반을 포기한다]

Cherniss[1932(1977)]: 파르메니데스의 일원론에 적용된 제논의 변증법은 그것이 다원론에 적용됐을 때와 동일한 역설을 생산한다 - 그 두 번째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파르메니데스 편의 풍자(parody, 281)요, 방법론적으로 제논의 논리-chopping이다.

Cornford[1939(1958)]: 전반 부의 아포리아들(difficulties, 파., 101)은 아카데미아 안에서 생긴 것들이다 - Eudoxus가 관여 이론에 관한 조잡한 유물론적 견해를 지녔다. 그래서 그 반대들은 플라톤과 동시대인들인 소크라테스 학파 중의 하나인 메가라 학파의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후반 부의 안티노미들도 메가라적 논리 방법에 의해 연역된 것들이 아니다(토일러를 반박).

후반 부는 이데아 상호 관계(80)를 다룬다(105).

제 1·2 가정은 antinomy(202)가 아니다 - 하나와 다름의 여러 의미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티노미에 걸릴 것이다. 토일러에 따르면, 헤겔 변증법이나, 칸트의 안티노미들을 우리는 발견 못한다(202-303). 공통 전제의 서로 반대되는 하나의 해석이다(203).

제 1 가정의 하나는 아무런 속성들도 지닐 수 없으며, 제 2 가정의 있는 하나는, 만약 제논이 무시했던 애매한 항들(terms, 204)의 의미들의 구분들을 관찰한다면, 반대 속성들을 지닐 수 있다.

제 2·3 가정에서 우리의 시선을 시 공간 안에(204)놓을 필요 없다 - 논리적인 순서와 감각 세계를 혼동해서는 않된다 - 제 2 가정은 일자로부터의 감각세계 유출 또한 아니다.

제 3 가정을 구분된 전제로 보는 것은 신 플라톤 주의(플로티누스)와 헤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제 3 가정은 독립적인 전제의 지위를 지닐 수 없다. 3 가정은 Appendix or Corallary(194)로서 생성이 일어나는 때에 관한 물음이다.

Ryle(1939): 파르메니데스 편은 논리 문제에 관한 논의이다. 이 대화 편에서 인간 영혼 또는 신 또는 불

멸성 또는 물리학 또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일원론 등에 관한 플라톤의 후기 견해를 파악(to know, 316)하려 들려고 생각해서는 않된다. 그것은 철학의 운문이나 시 연습이 아니라, 문법 연습이다.

라일은 1939년(논문집29)의 자신의 견해를 취소함 - 그 첫 부분은 간접화법(indirect discourse, Weingartner,논문집30, 57쪽)인 반면 그 두 번째 부분은 직접화법이므로, 후자의 물음들이 전자의 물음들에 속한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유감을 그 스스로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라일은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Ross(1953)와 **후지사와**(논문집3, 241b): 그 첫 부분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해를 논의하기 때문에 특별자와 형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의 분류에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다.

토일러의 관념론적인 해석, 논쟁적인(eristic, 95)해석, 초월론적인 해석, 컨퍼드와 로빈슨의 해석 등에 관한 단평 - 여기서 로스는 하디의 용어들을 빌려 온다.

Robinson(1953): 첫 번째 부분은 플라톤 자신의 형상이론 비판(229)이며,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사상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279)단지 정신적인 훈련(264)일 뿐이다-오류 추리의 발견과 변증법의 실천(224).

Vlatos(1955):

중기 존재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화 편의 전반 부의 어려움은 중기 존재론에 내재한 어려움에 대한 심각한(gravity, In 스미쓰 플라톤II, 214쪽 각주 16번)어려움의 인정일 뿐이다 - 분리와 비동일성(IN Smith Plato IV, 15)의 함축을 분명히 하면 세 번째 사람의 논의는 성립한다.

두 번째 부분 전체는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논문집13, 328). 단지 laborius game일 뿐이다.

Runciman(1959): 형상 이론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그 대화 편은 형상 이론에 관한 플라톤 자신의 진지한 단평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후반 부는 형이상학적 가르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반 부로부터 이끌려 나오는 모순들이 가능하다는 훈육(Moral, 논문집 30, 211b)은 단순한 변증적인 훈련 보다는 더한 것이나 형상 이론의 포기 보다는 덜한 것이다.

모방해석, 초월론적인 해석, 코퍼스 해석, 로빈슨 해석, 라일 해석, Peck 해석, Scoon의 해석 등에 관한 단평들(230b-230a).

Owen G.E.L(1959):

세 번 째 가정은 I/P 혼동[is의 동일성과 술어적 쓰임새의 혼동, Ryle노트, 358번(Logic, 85)]

Zekl(1972): 두 번째 부분은 하나의 비판(Kritisch, XXIX)일 뿐이다.

Hägler(1983): 첫 부분의 아포리아는 플라톤 자신의 것인가? 또는 변증 이데아 론에 향한 것인가? 후자일 듯하지만, 무한 후퇴 논의(세 번째 사람, 자기 술어-이데아?)는 심각하다. 이데아 론 자체가 문제시 되는가? 무한 후퇴 논의의 구조와 기능이 밝혀지면 대답 가능(2).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묶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3)? 그 부분들은 불합리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것에 공통이다(5). 국가 509B(101)가 파르메니데스 두 부분을 묶는 것이 아니다(프로클로스 비판). 두 부분은 분리 돼 있다(103)

해소될 (아포리아) 모순이 없다 - 다른 대상 다른 속성(Eigenschaften, 177)을 지닌다. 그 귀결들이 연결되지 않는다(179).

제 3 가정은 논의를 시간과 결부시키는 것일 뿐이다-제논의 역설과 관계되는(181; Ryle, 논문집30, -18b)생성과 순간의 아포리아를 규정한다. 제 1 가정의 역설이나 2 가정의 안티노미들이 순식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제논의 움직임의 역설을 다시 재 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제 2 가정의 몇 몇 반대들은 제거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니다(181).

Allen(1983): 그 전반 부의 비판들은 아포리아(96, perplexity)이다. 철학한다면 반드시 직면하는 곤란한 것들이다. 이러한 곤란함들은 변증적인 탐구를 제안한다-부정되야 하는 것은 인정(recognition, 98)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비판들이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아야(invailed)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요구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96).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Aporetic이

다. 그리고 이런 문제학이야 말로 파르메니데스의 구조적 단일성을 위한 열쇠이다.

전제적인 연습 또한 문제학(aporetic, 98)이다. 그러한 그릇된 인정(admission, 98)의 결과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드러 낸다.

제 3 가정은 제 1·2 가정을 combine(261, 연결)한다. 제 3 가정은 독립된 전제가 아니라, 동일한 전체가 '세번' 취해진 것이다. 세 번째 연역이지, 두 번째 연역의 corollary[계론, (증명된 것들로부터 잇따르는 것)]이 아니다.

Fine(1984): 파르메니데스 편은 is aproetical and dialetical(스미쓰, 플라톤II, 179). 어떤 최종적인 견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을 것이다.

Turnbull(1989):

'트리톤'은 세 번째 가정(Coda)을 가리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제 결론의 파르메니데스적 Version [제 1 가정]과 플라톤적인 Version[112, (제 2 가정)]을 가리킨다. 제 3 가정은 1·2 가정의 비꼬는 투의 (tongue-in-check)연결이다. 그 대화 편 초기 페이지의 파르메니데스적 그리고 제논적 주장에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3 가정의 주요 임무는 변화에 관한 논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변하는 것이 동시에 F와 G일 수 있다는 것이 회피되야 한다. 그러나 비-시간적인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F도 G도 아니다.

Mainwald(1991):일자에 관한 결론을 획득하는 세 번째 effort(121)이긴 하나, 그 주요 부분이 아니라, 보조적인 탐구이다.

Coxon(1999):

파르메니데스의 연습의 나뉨들을 Deduction이라고 부르자(125) - 그 전제는 제안된 훈련 그대로 A (있다면), B(있지 않다면).

제 3 가정의 부정들은 제 1 연역[제 1 가정]으로부터 파생(derive, 151)된 것이 아니다. τὸ τρὶτον은 시간에 관한 앞 선 두 논의에 이은 시간에 관한 세 번째 최종(final, 151)논의로서 제 1 연역의 반 정립이다. '세 번째'는 기원 전 5 세기에 최종적인 논의를 도입하는 쓰임새를 지녔다.

II) Μερέχειν(논자3, 101-102; Morrow, 들어가기, XIX)

II-1)플로티누스와 관여(Strange, 논문집 31)

플로티누스는 관여의 문제(324b)-프로클레스의 주석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스 편에 공통되는 4가지 문제 중의 마지막 문제이다(324a-)를 자신의 엔네아데스 VI.4-5에서 논의한다.

파르메니데스 편의 관여는 감각적인 것들의 이데아로의 관여(329a)를 말한다.

II-2)메텍시스가 나타나는 맥락

II-2-1)Groy: 전반 부의 관여 아포리아(논문집31, 68a)와 후반 부의 코이오니아의 아포리아는 die Chorismos-Problematik에 직면한다.

II-2-2)Tayler: 관여의 의미(파., 16) - 앎에 다다르기 위함? - 전반 부의 모든 비판은 관여 관계(그 책, 353)에 연관된다. 파르메니데스의 모든 비판은 감각적인 것이 지성적인 것에 대해 맺는 관계에 대한 설며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아 이러한 비판은 플라톤 자신의 것이 아니다(그 책, 350). 따라서 진지한 것이 아니다 -- Robinson 참조(초기 변증법, 224)-형상이 있다는 것에 관한 비판.

II-2-2)Ross: 제논의 다원론 반박에 대한 재 반박의 근거로서 소크라테스는 관여이론을 내 세운다(이데아 론, 83)

II-2-3)Cornford: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반대되는 질들을 지닐 수 없다는 제논을 반박하기 위해 파이돈의 '플라톤'은 큼과 작음의 '관계'를 내 세운다 - <두 이데아를 동시에 메텍시스한다(80).

II-2-4)Fujisawa: 관여 개념은 그 전반 부에서 연이은 비판의 타켓이 된다(논문집3, 234a).

II-2-5)Allen: 관여의 딜레마(논문집31, 196a).

II-3)관여 항들과 그 관계.

II-3-1)관여 항들['III-2-1)분리 항들' 참조]

II-3-1-1)Nehamas: 중기 대화 편의 관여는 감각적인 것들과 형상들 사이의 관계이다(논문집31, 294a). 그러나 소피스테스 편에서는 형상 서로의 관계이다. 형상들 사이의 관여는 플라톤 사유의 진보이다(307a).

II-3-1-2)Fujisawa: 형상 서로의 메테케인과 형상과 특별자 사이의 메테케인은 다르다. 이것은 로스가 주장한 그대로이다(논문집3, 234'a, 241b). 그러나 Zeller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II-3-1-3)Natorp: 관여하는 것들은 경험 대상 x(247)과 동일하게 되는, 알론한 것들-있지 않는 것-하나 아닌 것-Erscheinenden(247).

II-3-1-4)Mills K.W.: 특성(characterstic)을 보기화(exemplifies)하는 것이 그 특성에 대해 맺는 관계를 표시한다(논문집3, 223a).

II-3-2)관여 관계

II-3-2-1)Strange: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닮음은 non reciprocal(논문집31, 332b; παρουσία역시 그러하다 137b). 따라서 무한 후퇴는 일어나지 않는다(ἐννεάδες, I,2,2,3-10).

II-3-2-2)Vlastos: 'Q: 형상들은 분리해 존재한다'안에서 표현된 관여하는 것이 형상에 대해 맺는 그 관계가 Symmetrical(스미쓰, 플라톤2, 209; 논자2, 133)하다면, 그 'Q'는 'P: 형상들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와 논리적으로 동치가 아니다. 'P' 안에서 표현된 관여하는 것이 형상에 대해 맺는 그 관계는 antesymmertic(210)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P' 관계가 플라톤의 중기 대화 편과 티마이오스 편에서 표현된다['III-2-2-1)'참조]

Ⅱ-4)메테케인과 에케인

Ⅱ-4-1)메텍시스라는 낱말.

Ⅱ-4-1-1)Kutscheta: Μετέχειν 이라는 단어는 플라톤 이전에 아낙사고라스 만이(nun, 25)사용한다(단편 6. πάντα παντὸς μοῖραν μετάχει). 아낙사고라스에 의존하는 Diogenes von Apollonia도 사용함

Ⅱ-4-2)메텍시스와 헥시스의 구분

Ⅱ-4-2-1)Ross: ㉠ἔχειν과 μετέχειν과 ἔνειναι는 형상의 내재를 함축하는 말이다(후지사와, 논문집3,40; 로스, 228). 파르메니데스 편 전반 부의 세 번째 사람 반대는 초월론적인 견해에 대한 반대(object, 230)이며, 그 전반 부의 마지막 논의 역시 내재론 적인 견해에 맞선(against, 231)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견해에 엄밀히 맞선다. 따라서 플라톤은 초월론적인 견해에 만족하지 않는다(231).

㉡παράδειγμα와 αὐτὸ καθ' αὑτό와 μίμησις는 형상의 초월을 함축하는 말이다(228).

Ⅱ-4-2-2)Fujisawa: 후지사와는 내재/초월 보다는 자신의 논문에서 그 구문론적 함축에 더 관심을 나타낸다. 로스의 주장과는 달리 에케인은 내재를 메테케인은 초월을 가리킨다(논문집3, 237a). 메테케인이라는 용어는 결국 세 번째 사람 안의 형상 론을 포함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 틀에 얽혀든다(283'b). 그러나 주어-기체-실체로서의 x(이 것) 없는 F 틀은 텔레스적이 아니다. Χώρα를 질료와 동일시하는 텔레스는 그것을 다시 관여자(238'b)에 적용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x(개별자) 개념을 사용하여 관여 용여로 형상과의 관계를 재 진술한다. 그러나 관여 보다는 파라데이그마 용어가 플라톤의 후기 대화 편들에서 쓰여진다. 이것은 내재에서 초월로의 발전이다(논문집3, 234'a). 메테케인 용어로 형상/특별자 관계를 나타내는 후기 대화 편은 없다.

Ⅱ-4-2-3)Nehamas: Vlastos는 관여와 지님을 구분한다(논문집31, 299b). 관여는 후자(지님)의 특별한 종이다

Ⅱ-4-2-4)Mills K.W.: 메테케인(to have a portion of, 논문집3, 223a)은 에케인(to have)보다 더 잘 쓰인다.

Ⅱ-4-2-5)Cronford: Παρουσία는 quality의 소유를 나타내는 비 테크니컬한 용어이다.

Ⅱ-5)메텍시스의 해석

Ⅱ-5-1)Sckofield: Jackson에 따르면 메테케인은(논문집30, 444b) '공통으로 지니다'를 말한다 - 형이상학적으로 unloaded.

Ⅱ-5-2)Natorp: 메텍시스는 이데아로부터 현상으로의 도달(247)[을 나타낸다]. 이데아와 경험대상 x와의 bezüglich(관계있는, 분리되지 않는) Setzung의 근거는 사유의 기능(247)이다. 바로 이 기능이 관계 속에서 성립함.

Ⅱ-5-3)hägler: 관여가 하나의 Prozeß(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184)으로 파악된다.

Ⅱ-6) 'is'와 'Partake of'(논문1, 50-52).

Ⅱ-6-1)Cornford: 'Is = Partake of'는 'share or have in common'일 뿐이다(76-77). '='는 'is equivalant to'를 뜻함. 그러나 'becoming(79) ≠ partake of'.

Ⅱ-6-2)Robison: Hardie는 '='를 인정(초기변증법, 245).

Ⅱ-6-3)Hägler: 파., 155e-156a은 I/P혼동(Both A and -B를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 'is'의 동일성과 술어의 혼동)에 근거한다는 Owen의 비판은 " 'Teilhabe an Sein'과 'Existenz'는 동의어이다 " 라는 그릇된(182)전제에 근거한다.

Ⅲ) Χωρὶς(논문1, 87-88, 143)

Ⅲ-1)파르메니데스 편의 분리는 파이돈 편의 분리인가(분리의 맥락)?

Ⅲ-1-1)Ἀριστοτέλες: 플라톤의 이데아는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εἶναι παρὰ, 형., 1078b16)
소크라테스는 보편자를 분리시키지(χῶρις, 1086b4)않았다.

Ⅲ-1-2)Natorp: 분리의 그 강조는 파이돈에 나타나지 않는다(231).

Ⅲ-1-3)Burnet: 파이돈과 국가의 형상 론의 비판이 파르메니데스 편이다(253)-소크라테스의 이론은 정확히 파이돈의 것이다.

Ⅲ-1-4)Tayler: 파이돈의 것이다(10, 35, 50).

Ⅲ-1-5)Groy: 파이돈의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논문집31, 27)

Ⅲ-1-6)Strege: 파이돈의 분리이다(논문집31, 329b).

Ⅲ-1-7)Turnbull: (19).

Ⅲ-1-8)Gauss: 중기(mittlere, 130) 플라톤의 이데아 비판이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Ⅲ-1-9)Cronford: 분리를 가장 뚜렷하게 말하는 유일한 대화 편인 파이돈과 그리고 파이돈 보다 더 초기 대화 편인 메논의 비교는 소크라테스는 에이도스를 사물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텔레스 3 장을 확인(bear out, 136)시켜 준다 - 파이돈의 그 분리(81)가 파르메니데스 편의 그것이다.

Ⅲ-1-10)Fine: 티마이오스를 포함 어느 중기 대화편에서도(nowhere, 스미쓰, 플라톤II, 178) Χωρὶς가 현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소피스테스와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독자적인 존재(I.E., 178)를 뜻하지는 않는다.

Ⅲ-1-11)Devereux: 중기 대화 편의 형상 이론의 본질적인 요소를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 편(논문집30, 608a)에서 다시 지적해 낸다. 파르메니데스 편 그 전반 부의 의도는 그 중기 대화 편의 분리된 형상들의 이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들과 그것들의 관여자들로부터 형상들이 근원적으로 분리되는 그 이유들을 지시하는 것이다(213).
텔레스의 형상 분리 이해는 플라톤의 형상 분리와 동일하다(609b) - 오해하지 않는다 - 텔레스는 형상들의 분리는 자신들의 관여자들 안에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데(613b), 플라톤은 존재론적인 독립으로 그 분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Ⅲ-1-12)Allen: 그렇다(96, 로빈슨의 플라톤의 초기 변증법 229-230을 보라). 관여에 관한 논의는 파이돈과 필레보스 편에서 나타난다.

Ⅲ-2)분리 항들과 그 관계

Ⅲ-2-1)분리 항들['Ⅱ-3-1)' 관여 항들을 참조]

Ⅲ-2-1-1)Πλωτινος: 내재 형상은 μιμήματα(Strenge, 논문집31, 336b).

Ⅲ-2-1-2)προκλος: 내재된 특성?(τὶς ἐξῃρημένας μονάων, 784, 21줄).

Ⅲ-2-1-3)Cornford: 에이도스와 내재된 특성(Character, 81)과 구체적인 사물 이 세 가지이다.

Ⅲ-2-1-4)Vlastos: 형상과 이 형상에 관여하는 것(관여자, Partinonals, In Smith Plato II, 16).

Ⅲ-2-1-5)Devereux: 자체적인 형상은 여럿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논문집30, 616a).

Ⅲ-2-1-6)Turnbull: 분리는 형상과 개별자 뿐만이 아니라(not just,19), 형상과 그 형상의 몫들(shares, 내재 형상, 나뉘어지녀진 것들, 20).

Ⅲ-2-1-7)Fine: 중기 대화 편에 관한 형상론에 관한 비판에 있어서의 우리 안의 큼(In Smith plato Ⅳ, 212a)

Ⅲ-2-2)분리 관계

Ⅲ-2-2-1)Vlastos: 분리 항들이 몸과 영혼인 경우(파이돈, 64c5-8)antisymmetric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In Smith, Plato Ⅱ, 210). 그러나,
분리 항들이 형상과 관여자들인 경우에는 antisymmetric하다. 같음은 항상 symmetric한 관계만은 아니다['Ⅱ-3-2-1)' 참조].

Ⅲ-2-2-2)Allen: 이데아의 분리는 symmetric(100)하다 - 존재론적인 독립의 감각에서 그렇다(파르메니데스 첫 물음의 경우).

Ⅲ-2-2-3)Fine: 분리는 symmetric relationship(In Smith Plato Ⅱ, 178-179)을 가리킨다. 게네시스와 우시아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형상들은 서로(from one another, 179)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들은 형상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 할 수는 없다[그래서 분리는 독립적인 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Ⅲ-3)분리 라는 낱말과 그 뜻

Ⅲ-3-1)분리 표현들

Ⅲ-3-1-2)Groy: χωρὶς 라는 말은 129d-130d에서 다섯 번 나타난다. 그러면서 주제로 삼아진다(논문집 31, 68B, 각주35)

Ⅲ-3-1-1)Vlastos: 플라톤은 부사 χωρὶς 만을 사용했다. 동사 χωριζεῖν과 형용사 χωριστὸν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Allen(130b3-5)과 Cornford(130b2-3)는 separate(분리시키다)라는 동사로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은 거부되야 한다(In Smith Plato Ⅱ, 208).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아카데미에서 사용되고 있었을 그 동사와 형용사 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텔레스는 플라톤에 관한 비판의 맥락에서 그 동사형과 형용사 형을 자주 사용했을 것이다.
플라톤의 경우 εἶναι χωρὶς(130B4)는 εἶναι ἀυτὸ καθ' αὑτὸ(128eb-129a1)와 동치이다. 그래서 χωρὶς는 εἶναι ἀυτὸ καθ' αὑτὸ와 동치일 뿐.

Ⅲ-3-2)Χωρὶς의 뜻

Ⅲ-3-2-1)Nartorp: beziehungslos(χωρὶς, 246).

Ⅲ-3-2-2)Kutschera: χωρὶς는 'getrennt, 분리된', 'verschieden, 구분된', 'unabhängig, 자존의'을 뜻한다(23).

Ⅲ-3-2-3)Devereux: 영혼과 몸의 경우에 있어서의 플라톤의 분리된 존재는 존재론적 Independence(논문집30, 628b6)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텔레스의 형상 분리 이해는 플라톤의 형상 분리와 동일하다(609b) - 오해하지 않는다 - 텔레스는 형상들의 분리는 자신들의 관여자들 안에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데(613b), 플라톤은 존재론적인 독립으로 그 분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Ⅲ-3-2-4)Vlastos: 분리는 주로 공간(space, In smith Plato Ⅱ, 208)분리 이다.

Ⅲ-3-2-5)Fine: χωρὶς에 관한 여러 해석들 중 '㉠'을 인정한다-파르메니데스 편이건 소피스트 편이건 분리는 독립적인 존재(178)를 뜻하지 않는다
㉠ Ross(형이상학, I, xli), Morrison: 어느 하나 또는 모든 F 감각적인 특별자와 다름(in smith,

Plato II, 10).

㉡ Allen(유티프론, 132): 어느 하나 F 감각적인 특별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Hardie, Irwin: 모든 F 감각적인 특별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Else G.F. F 감각적인 특별자와 다른 자리를 지닌다–공간적인 분리

㉣Irwin: 감각적인 용어들로는 형상을 정의 할 수 없다–정의 가능성으로 그 분리를 설명한다.

IV)나누어 지니는 때 - ἐξαίφνης[156d3: 가정1과 2를 종합-변화(162c1; 논자1, 1950)의 때, 164d3: 여럿은 순식간에 무한하게 나타난다]

IV-1)엑사이프네애스 맥락

IV-1-1)Gauss: A에서 非A로의 전변 - **존재에 관여**(Partizipation, 세 대화 편, 172, 56).

IV-1-2)Gloy: 변화의 ort(논문집31, 105b)그러나 ortlos = stellelose. 매개의 원리가 엑사이프네에스(책, 310).

IV-1-3)Speiser:

IV-1-4)Frienländer: 순식간에 에이도스는 다른 이데아들과 연결(verknüpft, 논문집31, 145a)되는 반면 자신을 나누어 지니는 것들과 연결된다 - konvergenzpunkt(에이도스의 Ort)이면서 Divergrnz이다.

IV-1-5)Natorp: 이 말로 하기 어려운, 엑사이프네스(Denkstadium, 262)에서 사람들은 있음에서 소멸로, 있지 않음에서 생성으로 다달을 수 있다 - 순식간에 A에서 -A로의 끊임 없는 이행이 생각된다.

IV-1-6)Grote: 변화의 point(101) - 제 1·2 가정을 지탱해준다 - 3~9 가정까지 적용된다.
존재와 생성의 절대적인 대립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Steinhart**는 '순식간'을 플라톤의 중요한 진보로 본다(103). 그러나 플라톤의 진보는 아니다. 다른 대화 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IV-1-7)Horn: NU(ἐξαίφνης, 134)는 엘레아 철학의 새로운 처리(운동의 가상이 일어나는 곳).

IV-1-8)Cornford: 움직임에서 정지로의 전이(transition, 200)를 움직임의 불 가능성이라는 제논의 역설에 의해 제안된(suggestted, 200) 경우로 플라톤은 취한다.

IV-1-9)Talyer: 미적분학자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역설(그 책, 366)을 플라톤은 여기에서 진술하고 있다.

IV-1-10)Hägler: 순식간은 제 1· 2 가정을 매개하지 않는다(181).

IV-2)엑사이프네스와 시간

IV-2-1)Gauss: 파악할 수 없는 시간의 요소(플라톤철학 일반, I, 71).

IV-2-2)Gloy: 시간 밖의 추상적인 점으로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님.

IV-2-3)Speiser: Zeitpunkt이다.

IV-2-4)Natorp: 움직임에서 정지로 되는 그 때(wann, 261)는 Zeitpunkt이 아니다. 존재 형식으로서의 시간의 개념은 생각의 구분되는 과정(stadien, 261) 또는 계기의 논리적인 Sonderung(분리? 261) - 시간의 기능은 생각 안에서의 (개념들의) 상호정립 이외는 어떤 것도 아니다 - 구분되는 사유 과정 안에서의 정립 - 이로부터 시간의 구체적인 일상적 Bedeutung이 비로서 파생된다.
시간은 diskreten(불 연속적인, 262)정립으로 묘사될 수 있다. 불 연속적인 사유의 점. 그래서 시간의 Kontinuum은 Zeit-denken(163)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시간은 생각에 속하는(gehört, 262) 앞 뒤 만을 말한다. 그러나 시간 생각 안에서는 A와 -A가 함께 생각될 수 없다. A와 -A의 한계들이 동일하게 정립 되 버린다.

IV-2-5)Grote: 시간 외적인 점 -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아님.

IV-2-6)Tayler: 순식간에는 어떤 지속도 없다(파., 94; 파., 들어가기, 38; 책1, 83a).

IV-3)순식간의 해석들

IV-3-1)순식간은 지금 또는 점인가?

IV-3-1-1)Coxen: νῦν처럼, 지속을 지니지 않는 시간 상의 어느 한 점(53)처럼 여겨져서는 안된다. 엄밀하게 非시간적인 근원으로 특징지워진다. 뉜과 시간의 경과 사이에 엑사이프네에스는 놓이다.

IV-3-1-2)Allen: 아리스토텔레스의 νῦν과 같다(265) - 과거와 미래 사이의 end-point(255)로서의 indivisible한 now(νῦν)은 연속적인 지속 안의 limit(257)이다(선 안의 점처럼.)

IV-3-1-3)Speiser: 뉜의 자연인 것이 순식간이다(책1, 145b). 지금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은 지속(Dauer, 책1, 146b)을 지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infinitesimal Zeit이다. 이러한 지금과 순식간은 이것들이 Zeitpunkt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에는 있는 주관이 전제되지만 순간은 현실적인 현재가 필요지 않다(책1, 119).

IV-3-1-4)Gloy: νῦν이 아니다. 뉜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Jetzt이나, ἐξαίφνης는 아주 작은 원자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IV-3-1-5)Cornford: 점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은 점을 선의 아르케애(형., 992a20)로 본다. 현재 거기에 지금 있다(187). [컨퍼드는 지금에 관해 별로 말하지 않는다]

IV-3-1-6)Turnbull: Terporeal now(107) ↔ non stretch of time

IV-3-2)순식간은 상태(ἕξις, Zustand, state)이다.

IV-3-2-1)Πρόκλος: 제 2 가정의 하나는 τὸ ὄν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헥시스로서의 그것도 아니다.(1041, 23, 24; 1062, 20)

IV-3-2-2)Natorp: 순식간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되는 때이다. 엑사이프네애스는 Punkte이 아닌 Denkens이다. 반대 상태로 옮아 감은 경험적으로(empirsch, 262)주어지거나 지시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 상태들(Zustände, 261)이 동시에 생각되는, 그 반대의 상태로 옮아가는 때가 엑사프네애스이다. ㅇ롬아감 그 자체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옮아감이 지각 됨이 없이는 이전에 없던 것이 이후에 있을 수 없다(262). 따라서 사유의 정립이 회피 될 수 없다.

IV-3-2-3)Tuenbull(115)

IV-3-2-2)hägler(183)

IV-3-2-3)김 익성: 순식간의 영역은 τὸ ὄν과 τὸ γιγνομένον와 구분되는 제 3의 영역으로서의 ἕξις이다. 바로 이 영역에서 반대 에이도스로의 메텍시스가 일어난다.

IV-3-3)기타 해석들

IV-3-3-1)Owen: 배재율(the Exclued Middle)이 적용된다(로직, 라일 노트, 358번). P와 -P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

IV-3-3-2)Grote: logically(102)

IV-3-3-3)Speiser: logisch(172)

IV-3-3-4)Cornford: 향연(210E)과 제 7 편지(341D)에도 순식간이라는 낱말은 나타난다. 그러나 상기(**Speiser**, 47)나 아름다움의 직관(**Wahl**, 171)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IV-4)엑사이프네애스 영향사
IV-4-1)Gloy(논문집31, 105b, 각주 97번)

IV-4-1-1)아리스토텔레스: 시간과 엑사이프네스의 관계(자연학 IV, 10-14)

IV-4-1-2)Dionysius Areopagitas: Christologie

IV-4-1-3)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2. Anm. zum 3. Kap. (IV, 351-354)

V)Widersprüchen(논문1, 222-226)

V-1)Hägler: 아포리아들의 해소를 인정하는 입장 비판(175-181). 90-97, 102. 있고 있지 않다는 어느 한 때 있다가 어느 한 때 있지 않다는 말이다.

V-2)Tayler: 안티노미들은 모순율 위반(그 책, 349). 플라톤은 모순율을 거부하지 않는다(350).

V-3)Cornford: 소크라테스의 이데아 론에 따르면, 어떤 모순도 발생(contradiction, 80)하지 않는다. 후반 부 맨 마지막(166c)외견상(apperent, 107)모순은 일자의 두 가지 다른 의미들로부터 온다. 이 의미들이 구분되면 그 모순들은 해소된다. 그리고 전반 부 소크라테스의 모순은 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론(파이돈)에 의해서 [해소]된다(모순이 포함되지 않는다, 80쪽)

V-4)Natorp: 소크라테스는 모순을 해소한다(271) - (반대) 모순되는 속성들이 그 자체 분리 해(χωρὶς, 231)있기 때문이다.

모순 규정들은 분리 안된(bezüglichen, 247, 246) 정립의 영역이다 - 변화 과정에서 지양되는 속성들은 모순 없이(247)정립되는 것들이다?

V-5)Owen: 있고 있지 않다는 어느 한 때 있다가 다른 한 때 있지 않다는 말이다(logic, 358번)

VI)ἕν과 ἄλλα(논자1, 1238)

VI-1)Πρόκλος: ㉠τὸ ἕν의 세 가지 의미 - 있는 것 보다 뛰어난 것, 있는 것과 동치, 있는 것 보다 열등한 것(1039, 28-30; 번역 400, 하나의 ἕξις I 1041, 23)

㉡τὸ μὴ ὄν의 두 가지 의미 - μηδαμῶς ὄν과 어떤 때는 있으나 어떤 때는 있지 않는 것(1039, 31-32).

㉢ἄλλα(1041, 35; 번역 402)의 네 가지(논문4-1, 5).

㉠㉡㉢ 그래서 전제는 ἐννέα(1041, 42)이다(논문 4-1, 5) - 전제(ὑπόθεσιν, 1052, 20; 번역 410)란 (그 명제, 번역, 410)의 질(τὸ ποιον, 1052, 25)이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명제로부터 다른 귀결들이 나오면 그것을 전제라 했다. ⑥⑦⑧⑨전제는 ἄτοπά한 ①②③④⑤는 진실한 귀결들을 생산한다.VI-1)Burnet: The things of sense(262)이 아니다 - ἄλλα - 다른 형상들이다.

VI-2)Cornford: τὸ ἕν의 그릭 의미들(111, 185) - 하나를 파르메니데스 일자나, 신 플라톤 주의 자의 일자나, 헤겔적인 절대자나, 플라톤적인 형상과 동일시하면, 플라톤의 의도를 놓진다. 하나는 애매모호하다(112). 하나를 A로, 알론한 것을 (-A) or B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112).

ἄλλα는 다른 형상이나, 감각세계나, 이 둘 안의 유비적인 요소가 아니라, τὸ ὄν에 상응하는 여러 의미(meanings, 112)들을 지닌다.

여러 의미들을 지니므로 후반 부의 전제는 8 가지 연역들(107)로 나뉜다.

VI-3)Zeller: 이데아 일반이지 이데아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나토르프 해석은 유혹적(verlockend, 108)이다.

VI-4)Natorp: 하나는 중심 근본 개념(Grundgegriff, 244)이지, 순수 개념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알론한 것들은 Nicht-Eine(244)이지 규정된 경험 대상 x으로 이해되면 않된다 - 이데아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248).

VI-5)Ryle: ἄλλα를 감각 사물이나 이데아 어느 한 쪽에 한정 할(restrict, 논문집21, -18)필요 없다.

VI-6)Hägler: 하나는 절대자(신)과 최상의 존재 원리(하나 선 이데아)가 아니다. 하나는 가능한 대상일 수 없다. 신 플라톤 주의는 틀렸다. 그렇다고 이데아들의 류나 수나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나 하나의 이데아도 아니다. 하나는 Referiender(99) term이다 - Entität을 위한 이름이다.

여럿(185-186)의 후보들 - 하나와 구분되는 모든 것, 감각 대상, 하나와 구분되는 이데아들, 다름의 이데아.

VI-7)Allen: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는 아니다 - 관여 못 하므로. 그래서 모든 것(우주) 또는 하나의 이데아 또는 주어(subject, 1833)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신 플라톤적 해석(189-195).